

유럽 탄소배출 시장의 중심, ECX를 가다



런던 금융중심지 시티 전경
사진 : ECX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이하 ECX)는 어떤 곳입니까?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시티(city of London)의 비숍게이트 62번지 하슬우드하우스(Hassilwood House) 1층에 있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중 하나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유럽으로, 전 세계 15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중 7곳이 유럽에 있다. 이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ECX이다. 지난 2005년 EU ETS(EU 강제

배출권 거래안) 채택으로 개장한 이래, 당해 년도 9개 회원사가 9,400만 톤 (21억 유로) 거래에서 시작, 2008년까지 거래량은 연평균 122% 성장하여 2008년에는 총 23억톤의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ECX는 기후거래 그룹 (Climate Exchange Plc group)의 자회사로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시카고기후선물거래소 (CCFE) 등과 자매사이며 현재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시장에 상장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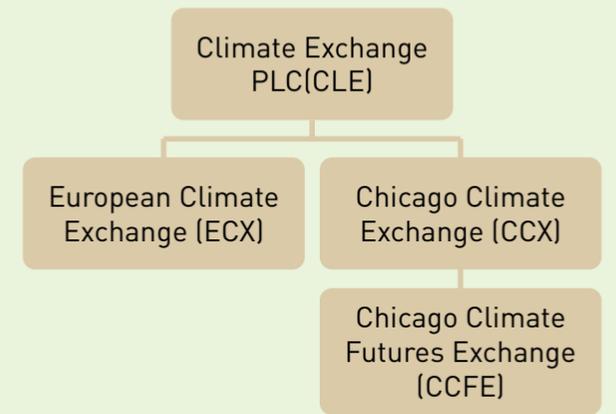
ECX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총 4가지로 EUA (European Union Allowanc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과 C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상품이 있다. EUA 선물이 2005년 4월에 상장되며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을 보였고, 뒤이어 EUA 옵션이 2006년 10월에 도입되었다.

ECX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ECX는 낮은 거래 비용과 가격 투명성을 무기로 유럽 탄소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ECX는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등에 소재한 탄소거래소에 비해 10~20% 정도 저렴한 수수료로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2008년 말 기준 회원사가 Barclays, BP, Calyon, E.ON UK, Endesa, Forti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Shell 등 95개의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된 가운데 일일 거래량 평균 1천 90만 톤을 기록, 유럽전체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HSBC, UBS,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세계 정상급 은행과 투자회사도 ECX의 고객이자 거래은행인데, 이들은 싼값에 배출권을 사들여 비싼 값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또한 ECX는 다른 거래소들과는 달리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만 취급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래액수뿐만 아니라 거래규모 면에서도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패트릭 벌리(Patrick Birley) 사장을 포함하여 직원은 단지 6명에 불과한데, ECX의 거래규모를 감안할 때 업무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ECX는 유럽선물거래소 ICE Futures Europe (website : www.theice.com)과의 협약을 통해 ECX가 개발 및 마케팅 하는 상품들을 ICE의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리스팅·판매하고 있고, ICE가 시장감독 및 모니터링을 관장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운영이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기후 거래 그룹 조직도 (자료 : ECX)

최근 거래소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산업계는 기존의 선물거래형태보다 직접적인 현금 유동이 가능한 현물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향후 현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CX는 3월 14일부터 일간 현물거래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ECX가 취급하고 있는 선물거래는 해당분기 종료 후 실제 대금지급 및 소유권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현물 거래는 거래일 +2일 이내에 대금지급 및 소유권 이동이 완료되는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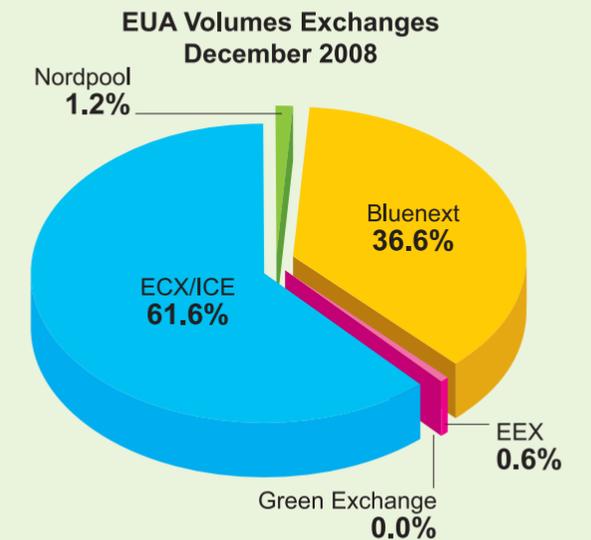
탄소거래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EU ETS(EU 강제 배출권 거래안) 때문에 다수의 산업에서 탄소거래가 강제화된 상태이다. 지난 2005년 전기, 석유, 철강, 시멘트, 제지 등 5개 산업이 탄소배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고, 2011년부터는 조선, 2012년에는 항공과 해양, 운송산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그 시장규모 및 영향력은 막대하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상대적으로 젊고 성장성이 높은 자산형태이며 전형적인 자산상품들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강제 배출 거래안 추진에 대한 오바마정부의 긍정적인 행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리더로서 한국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기후변화문제와 탄소배출문제가 세계적 화두인 이 시점에서 탄소배출은 향후 기업성공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항시 오픈마인드를 유지하고 국내 및 해외 조직들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기준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소별 점유율 (자료 : Point Carbon)